

# 또 준우승... 시상식 팽개친 호날두



알 나스르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4월8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알 힐랄과 알 나스르의 사우디아라비아 슈퍼컵 4강 경기에서 골을 허용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사우디 슈퍼컵 결승 선제골 퇴색 후반전 4골 내주며 역전패 수도 팀은 4년째 타이틀 탈환에 실패 경기 끝나자 메달도 안받고 귀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알나스르가 '라이벌' 알힐랄과의 2024 사우디 슈퍼컵 결승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선제골에도 후반에 4골을 허용하고 완패했다. 알나스르는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브하의 프린스 술탄 빈 압둘라지즈 스포츠 시티에서 열린 알힐랄과의 2024 사우디 슈퍼컵 결승에서 1-4로 역전패했다. 이로써 알힐랄이 2년 연속 및 통산 5번째 슈퍼컵 우승의 기쁨을 맛본 반면 알나스르는 2020년 우승 이후 4년째 타이틀 탈환에 실패했다. 알나스르는 전반 44분 만에 호날두의 득점포가 터져 리드를 잡았다. 골 지역 왼쪽에서 압둘라흐만 가리브가 내준 킥백을 호날두가 골문 정면에서 오른발로 방향을 바꿔 알힐랄 골대 오른쪽 구석에 꽂았다. 호날두는 자신의 전매특허인 '호우 세리머니'를 펼쳐며 자축했다. 이번 득점으로 호날두는 개인 통산 897골(A매치 130골 포함)을 기록해 '900골' 달성에 3골을 남겨뒀다. 하지만 알나스르의 기쁨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알나스르는 후반 10분 알힐랄의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에게 동점골을 내준 것을 시작으로 후반 18분과 후반 24분 알렉산드르 미르코비치에게 멀티골을 허용하며 1-3으로 끌려갔다. 알힐랄은 후반 27분 전방 압박에 나선 말콤이 알나스르 골키퍼의 볼 터치 실수를 놓치지 않고 가로챈 뒤 마무리골을 넣어 4-1 대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경기가 끝난 뒤 호날두는 실망한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2022년 12월 알나스르에 입단한 호날두는 2023년 6월 아랍클럽챔피언스컵에서 단 한 차례 정상에 섰을 뿐 사우디 정규리그와 컵대회에서는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다. 영국 매체 팀포크에 따르면 경기 내내 팀 동료들의 분발을 요구한 호날두는 후반전이 끝난 뒤 시상식에 참가하지 않고 곧바로 라커룸으로 향할 뒤 경기장을 빠져나가 준우승 메달을 받지 않았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17일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아스널과 울버햄튼 원더러스 경기에서 올렉산드르 진첸코와 황희찬이 공을 겨루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선방에 날아간 황희찬 첫 도움

플타임 소화한 EPL 개막전 울버햄튼, 아스널에 0-2敗

우리나라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의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울버햄프턴 원더러스가 새 시즌 프리미어리그(EPL) 개막전에서 아스널에 패했다. 울버햄프턴은 17일 영국 런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시즌 EPL 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아스널에 잔 후반 한 골씩을 내주고 0-2로 완패했다. 황희찬은 2선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볐으나 경기가 아스널의 우위로 흘러가면서 공을 잡을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다. 전반 36분 시즌 첫 도움을 올릴 기회를 잡았지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날아가 버렸다. 황희찬이 오른쪽에서 올린 대각선 크

로스를 이번 시즌을 앞두고 임대로 입단한 에르겐 스트란드 라르센이 헤더로 연결했다. 골대 구석으로 향하던 슈팅은 귀신처럼 방향을 잃고 몸을 날린 아스널 골키퍼 다비드 라이아에게 걸렸다. 아스널은 전반 25분 부카요 사카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카이 하베르츠가 헤더로 마무리해 선제골을 뽑았다. 사카와 하베르츠는 팀의 두 번째 골도 주인공을 바꿔 합작했다. 후반 29분 골 지역 오른쪽에서 하베르츠의 패스를 받은 사카가 빠른 몸놀림으로 수비수를 제치고 완발 슈팅을 날려 2-0을 만들었다. 황희찬은 직전 시즌에 EPL 입성 이후 최다인 12골(공식전 13골)을 터뜨렸으나 소속팀 울버햄프턴은 14위에 머물렀다. 아스널은 준우승을 차지해 올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까지 소화한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 이현이, 우즈벡 주니어 테니스 단식 우승

이현이(사진)가 국제테니스연맹(ITF) 우즈베키스탄 주니어 대회 단식에서 우승했다. 주니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395위 이현이는 17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나만간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톱 시드 선수인 알렉산드라 포자렌코(주니어 204위)를 2-1(3-6 6-3 6-3)로 제압했다. 5월 중국 청두 대회에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ITF 주니어

대회 단식 정상에 오른 이현이는 J100 등급에서는 처음으로 우승했다. ITF 주니어 대회는 4대 메이저 대회와 J500·J300·J200·J100·J60·J30 등급으로 나뉜다. 이현이는 이 대회 전까지는 J60과 J30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었다. IBK 주니어 육성팀 소속 이현이는 "J100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바란다"며 "결과보다 과정에 중점을 두며 문제점들을 찾아보니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Volvik  
CONDOR  
TOUR PERFORMANCE PREMIUM URETHANE BALL